

탈주범 1명 잡으려다...민생범죄 다 놓칠라

광주·전남경찰 특진 걸린 '이대우 전담팀' 울인 '4대악 척결' 요란 속 강간·폭력 사건 되레 늘어

경찰이 총력을 펼치고 있는 '4대악' 근절 활동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탈주범 이대우 추적전담팀이 새로 꾸러지자, 민생치안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4대악(惡)' 근절 활동에 전 경찰력이 투입됐으나 오히려 성폭력 사건은 증가세를 보여 범죄 차단 효과가 뚜렷한 상황이다.

여기에 부족한 수사인력을 빼내 특진까지 걸고 이대우 추적에 열을 올

렸지만 '4대악'으로 규정된 성폭력 사건은 오히려 증가해 범죄 차단·예방 효과를 내지 못했다.

광주북부경찰의 경우 4대악 척결에 나선 2월 25일부터 지난 5월 20일까지 '4대악'으로 규정된 성폭력 사건이 82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56건)에 비해 부쩍 늘었다. 서부경찰도 이 기간 모두 50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42건)에 견줘 오히려 늘었다.

전남지역도 상황은 비슷해 여수에 사는 이 기간 36건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 발생(17건)의 2배를 웃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이 내건 '4대악' 근절 구호가 무색한 형편이다.

4대악에 몰입하면서 민생 치안은 더 불안해졌다.

목포경찰의 경우 이 기간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가 모두 늘어났다. 강도(4→8건), 강간·강제추행(20→35건), 절도(357→456건), 폭력(491→535건) 등 모든 사건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여기에 각 경찰서마다 별도 수사인력을 동원, 특진을 내걸고 이대우 검거만 전담토록 한 탓에 민생 치안에 대한 시민 불안감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자칫 4대악, 탈주범, 민생 치안 등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노래방·영화관 화재무방비

전남지역 다중이용시설 점검...17건 위반

화재 등 재난·재해시 큰 피해를 주는 비상구 폐쇄 등 다중이용시설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소방본부는 도내 소방대상물을 점검해 모두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대상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현지 시정건수는 50건에 달했다.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관매점, 영화관,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래방, 음식점 등 모두 740곳이다.

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방화문을 아예 떼어낸 곳이 8곳에 달했고 영업 매장을 늘리려고 방화문을 제거한 곳도 많았다. 일부 건물은 피난구 유도등이 제대로 꺼지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비상구를 폐쇄해버린 건물도 적발됐다. 비상구 폐쇄의 경우 건물 소유주나 해당 업체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방화문 제거 사례는 소방 당국이 아닌 포상제에 따른 시민신고, 즉 '비파라치'(비상구 파파라치)가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선 소방서의 지도단속이 걸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했다"며 "표본을 추출, 매월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재 "자가 즐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요구 함련"

자신의 즐기세포를 이용하는 '자가 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에도 임상시험 등을 거치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는 환자 부모씨와 이모씨, 즐기세포 연구 치료제 개발회사인 알앤엘바이오가 구 약사법 31조 8항과 시행규칙 24조 1항 및 29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

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구 약사법 31조 8항은 의약품 판매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약사법 시행규칙 24조 1항 및 29조 1항은 세포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신청할 때는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등을 갖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고 그 결과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일 報勳大賞 施賞

13년 6월 12일(수) 15:00 • 주최: 光日報社 • 후원: 광주지방보



12일 정부광주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40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강수·이기순·박순덕·홍기범·송효석 씨.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당신들의 희생·봉사...사회 밝히는 등불

제40회 광주일보 보훈대상 시상식...5명 수상 영예

제 40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시민·수상자와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오희동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기 위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강수(상 이군경 4급·72·광주시 동구 학동)씨, 이기순(상이군경 처·71·광주시 동구 계림동)씨, 박순덕(전물군경 유족 처·81·광주시 남구 백운동)씨, 홍기범(전물군경 유족 아들·71·광주시 남구 주월)씨, 송효석(무공수훈 화랑·85·광주시 남구 월산동)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기범씨의 경우 광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아버지(故 홍형희)가 1948년 10월 18일 순천에서 순직한 뒤 어린 동생들을 돌보느라 등 실질적인 가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7분 / 해질 19시 48분

달돋이 09시 13분 / 달질 22시 44분

곳곳에 비소식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에 비 오는 곳 있었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림	20/25℃
목포	흐림	19/25℃
여수	흐리고 안개 비	19/23℃
나주	흐리고 안개 비	20/24℃
완도	흐리고 안개 비	20/25℃
구례	흐림	21/26℃
강진	흐림	20/25℃
해남	흐림	19/25℃
장흥	흐림	20/26℃
순천	흐림	19/24℃
영광	흐림	19/23℃
진도	흐림	19/23℃
전주	흐림	19/26℃
군산	흐림	18/24℃
남원	흐림	19/25℃
축산도	흐림	17/2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2.5	5.0	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2.5	5.0	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2.5	5.0	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2.5	5.0	1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04:57	10:13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16:55	22:09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11:33	05:33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	17:36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날씨	최저/최고
14(금)	흐림	20/27
15(토)	흐림	19/31
16(일)	흐림	20/32
17(월)	흐림	21/30
18(화)	흐림	22/26
19(수)	흐림	22/27

7월 중순부터 한달간 '물놀이 조심'

사망사고 88% 집중...정부, 안전요원 9342명 배치

정부가 이달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사망사고 예방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12일 물놀이 위험지역 1760곳에 공익근무요원·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안전관리 요원 9342명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해당 지역에 4만3492점의 구명조끼와 위험표지판 등 안전설비·장비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사망자의 88%(22명)는 본격 휴가철인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집중됐다.

정부는 2009년부터 이어 물놀이 위험지역 관리 노력을 기울이면서 2008년까지 매년 150여 명에 이르던 물놀이 사고 사망자가 2009년 68명, 2010년 58명, 2011년 52명, 2012년 25명으로 줄었다.

작년 물놀이 사망사고의 원인을 보면 56%가 안전 부주의, 28%가 수영 미숙, 8%가 음주수영 등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연합뉴스



멸종위기종 '신도해마' 거문도서 국내 첫 발견

멸종위기종으로 일본 남부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도해마' (사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2일 그동안 국내 서식이 확인된 적 없는 신도해마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거문도에서 처음 발견, 한국어목록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 약 50여 종이 있는 해마

는 지난 2004년부터 국제 야생동물·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 (CITES)에 따라 국제적인 거래가 금지됐다. 이번 발견된 신도해마는 약 10cm 크기로 몸통에 가늘고 긴 꼬리가 달렸다. 그동안 신도해마는 일본 남부지역 연안에서만 발견돼 일본 고유종으로 알려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ELYSIA
엘리시아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예약문의 엘리시아 예약실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385-3000

www.elysia.co.kr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
☎ 061-332-1111

- 150여 구급객실
- 100여 구급연회장
- 50여 구급연회장

이음금액 (뷔페 1인기준)
★平日 20,000원~25,000원
★주말·공휴일 25,000원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062)513-4000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엘리시아 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는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구분	平日		주말, 공휴일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성인	23,000	27,000	30,000	33,000
초등학생	12,000	14,000	15,000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9,000	10,000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Special Service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빅프로젝트 및 음향시설 완비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숍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정식특선		정식코스요리	
참조기탕	12,000원	A코스	40,000원
생우럭탕	12,000원	B코스	50,000원
대구탕	15,000원	C코스	60,000원
생선초밥	12,000원	(1인기준 2인이상)	
특초밥	15,000원	주말 가족특선	
생선구이	15,000원	4인 한상차림 100,000원 (토요일,공휴일에 한함)	
굴비정식	20,000원		
나고야정식	25,000원		